



‘간편 미식’
프리미엄 라면
전성시대
L1

metro[®]

Life

뷰티 제조기업
해외시장 확장
3분기 호실적
L2



“흑백 기록에서 그리움의 색으로… 세월호 기억 그렸죠”



새벽을 여는 사람들

박 건 웅 그래픽노블 작가

세월호 10년, 잊힘을 거스르는 한 작가의 붓끝이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픽노블 작가 박건웅이 세월호를 주제로 한 그림책으로 슬로바키아 'BIB(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에서 상을 받았다. 25년 동안 한국 현대사의 상처를 흑백으로 기록해온 그는 이번에는 색으로 기억을 그렸다.

박건웅 작가는 “이번엔 그리움의 색으로 담아보고 싶었다. 슬픔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억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수상 연락을 받은 당시를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수상 소식이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박 작가는 “상갓집 가는 길에 국제전화가 와서 스팸인 줄 알고 끊었다. 나중에 메일 휴지통을 보니 ‘축하합니다’라는 단어가 보였고 그제야 BIB에서 수상을 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지한 얼굴로 바뀌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운이 좋았다면 이 작품이 세월호를 참사가 아니라 그리움의 이야기로 본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건웅은 자신을 ‘기억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대표작 ‘노근리 이야기’, ‘집승의 시간’, ‘남영동’ 등은 모두 한국 현대사의 고통을 다룬 그래픽노블이다. 전쟁의 학살, 고문의 기록, 억압된 기억 등 ‘말해지지 못한 역사’를 그림으로 붙잡았다. “전쟁이든 독재든 결국 인간의 이야기다. 어떻게 견디고 살아남는가, 인간은 어디까지 잔혹할 수 있는가 등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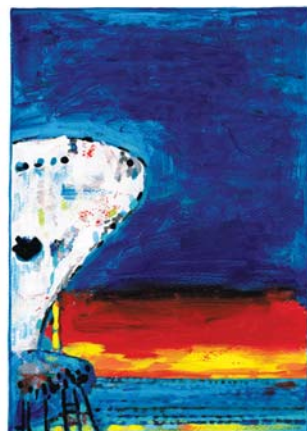
박 작가의 작업은 기록이자 복원이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이들을 직접 찾아다녔다고 증언을 듣고, 오래된 사진을 뒤지면서 잊힌 얼굴의 윤곽을 되살렸다. “작가도 기자처럼 세상을 걸어야 한다.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보이게 하는 게 내 일이다”고 말했다.

그의 그림 속 인물은 현실보다 조용하지만, 더 오래 눈에 남았다.

그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강으로 흐른다. 만화든 그래픽노블이든 그림책이든 형식만 다를 뿐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강이다. 중요한 건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고 말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그리움’이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림은 그리워하디의 준말’이라고 말해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광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그리고 있었는지 알게된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

이후 그는 그리움을 주제로 작업을 이어갔다. 세월호 그림책 역시 그리움의 기록이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BIB'에서 황금사과상을 수상한 박건웅 작가의 그림책 '세월 1994-2014'.



▲박건웅 작가의 집승의 시간(왼쪽)과 작은아리랑 표지.

◀박건웅 작가.

세월호 주제 그림책 ‘세월 1994-2014’
세계적 그림책 비엔날레 ‘BIB’ 수상

25년간 흑백으로 한국사 상처 기록
전쟁, 독재 등 현대사의 잔혹함 담아

그리움이 준 깨달음, 인생 전환점으로
처음으로 컬러 사용한 세월호 그림책
고통보다 희망, 그리움의 온도 전해

예술은 존재를 잊히지 않게 하는 일
잊힌 사건·사람들의 이야기 그릴 것



‘BIB’ 황금사과상 트로피.

었다. “그림은 누군가를 그리워해서 그리는 것이다.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다시 꺼내려는 게 아니라, 남은 이들의 그리움을 담았다”고 말했다.

박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은 흑백이었다. “처음엔 단순하게 비용의 문제였다. 컬러 인쇄비가 두 배가 높았기 때문이다”라며 웃었다.

하지만 흑백은 어느새 그의 언어가 됐다. “색이 없으면 보는 사람이 각자 다른 색을 떠올린다. 피를 검게 그려도 사람마다 각자의 붉음을 상상하게 되고 감정이 여과되지만 더 깊게 들어간다”며 “색을 쓰는 건 쉽지만, 빼는 건 용기다. 흑백은 인간의 내면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세월호 그림책에서 그는 처음으로 컬러를 사용했다. “이번엔 밝고 따뜻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슬픔보다 희망, 그리움의 온도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지금도 모든 그림을 작가용 테이블릿이 아닌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린다. “화면을 보면 눈이 아픈 것도 있지만 손으로 그릴 때는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따라온다”며 “손으로 그린다는 건 시간을 담는 일이다. 잉크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선이 빠지면 그대로 둔다. 그 불완전함이 인간의 흔적이다”고 말했다.

박건웅 작가의 작가 인생에도 암흑기는 존재했다.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 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이다.

박 작가는 “확인된 건 없지만, 그때를 기

점으로 일감이 끊겼고 진행하던 공공기관 일도 취소됐다”며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버티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가에게 가장 힘든 건 돈이 아니라 목적을 잃는 것이다. 내가 왜 그리는지를 잊지 않으면 힘든 시기는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를 버티게 한 건 가족이었다. 박 작가의 부인 역시 만화가였기 때문에 의지가 배가 됐다. “둘 다 돈은 못 벌어도 서로를 이해했다. 누군가가 왜 돈을 못 벌어요냐고 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박건웅 작가는 “그림책이든 만화든 결국은 기억을 남기는 일이다. 누군가의 그리움이 다른 누군가의 기록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25년 동안 그는 흑백으로 시대의 상처를 기록했고, 이제는 그리움의 색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있었다.

박 작가는 “예술은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잊히지 않게 하는 일이다. 그게 내가 그리는 이유다”며 “세상에 없는 일을 할 때, 세상이 당신을 먹여 살릴 것이다”라는 좌우명으로 삼으면서 누구도 다루지 않았던 사건, 잊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겠다”고 말했다. 박건웅 작가는 그렇게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펜을 들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메시 2골1도움’ 인터 마이애미, 내슈빌 꺾고 MLS PO 8강행

▲백승호, 경기 5분 만에 부상 교체…“11월 A매치 불투명”

/사진 뉴시스

▲‘기성용 데뷔’ 무승부…K리그1 포항, 서울과 0-0으로 비겨

▲‘최고 대우’ 염경엽 감독, 최초 ‘30억원’ 사령탑 시대 열었다

▲의상대사 화엄 사상 보고 듣고 느끼다…‘의상화엄 문화체험전’

▲무용으로 ‘관계맺기’…제46회 서울무용제 21일 개막